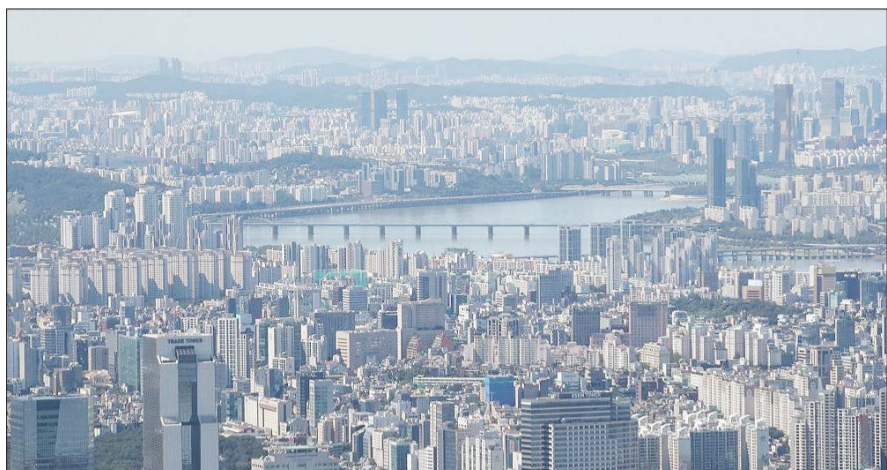


임대차2법, 전세시장 불 질렀다... '한 달 새 4억' 댔 곳도

임대차2법·이사철·매물부족 등에 9월 전국 전세가 전월비 0.53% ↑ 서울 상승폭 0.43%→0.41% 축소 이주·학군 많은지역 호가는 치솟아 서초구 0.63%, 강남구 0.56% 상승 강북 노원구·성동구 0.49% 올라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물건 품귀현상을 나타내며 서울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경. /연합뉴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53% 상승했다. 수도권(0.54%→0.65%)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43%→0.4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이주 수요와 학군 수요가 꾸준한 지역 위주로 호가는 여전히 치솟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0.63%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93㎡)는 지난달 17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8월 15억원에 계약된 바 있다. 한 달 새 전세 호가가 2억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반포자이(59.97㎡)도 2억 넘게 오른 11억 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강남구는 학군 지역 위주로 0.56% 상승했다. 유명 학원가가 많은 대치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전용면적 94.49㎡)와 대치아이파크(전용면적 84.98㎡)가 각각 18억 5000만원, 18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8월 11억 8000만원에 계약된 삼성래미안(전용면적 97.35㎡)은 지난달 16억원에 물건

이 나왔다. 한 달 새 호가만 4억원에 넘게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물건도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반전세나 월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와 성동구가 0.49%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강북 최대 학군지역으로 불리는 노원은 상계주공 3단지(전용면적 84.38㎡)는 4억원, 8월 6억원에 계약된 중계동 건영3차(전용면적 84.9㎡)는 한 달 새 8000만원이 오른 6억 8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하계동 미성(전용면적 57.97㎡)은 3억 4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의 한 축인 성동은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올랐다는 평이다. 주요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전용면적 84.51㎡), 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면적 84.73㎡)은 지난달 각각 10억원에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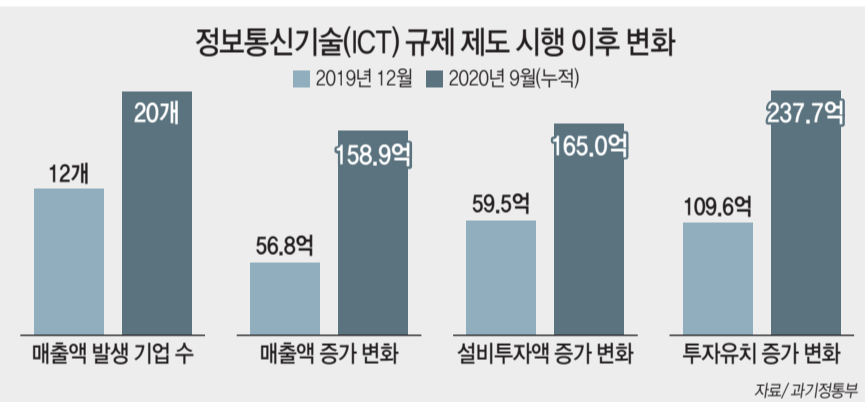
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8월 8억에 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새 2억원이 오른 셈이다. 8월 5억 8000만원에 계약된 서울숲푸르지오(전용면적 59.99㎡)도 지난 달 1억 2000만원이 오른 7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동구는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마주하고 있어 강북에서 최고의 입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라며 "서울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 상승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전세물건 부족으로 월세 수요는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3%→0.17%), 서울(0.09%→0.10%), 지방((0.08%→0.09%), 5대광역시(0.09%→0.10%), 8개도(0.04%→0.06%)는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세종(1.37%→1.08%)은 상승폭이 줄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올 누적 매출 179% 급증... VC 통해 238억 투자유치

(벤처캐피탈)

ICT 규제샌드박스 기업 3분기 성과

9월 누적매출액 158.9억원 기록
신기술·서비스 등 37건 시장출시
신규채용 388명... 향후 확대전망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했으며, 누적 매출액이 9월 기준 지난해 12월 대비 1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8개 지정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 7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 발표를 통해 지정기업의 9월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 8000만원에서 102억 1000만원 증가한 158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특히, 3분기에만 카카오모빌리티가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스테이지파 이브·KT·카카오페이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선보이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공유숙박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코나투스)'는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 6000명을 모집했으며,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기준 지난해 9월 대비 월 매출액이 3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같은 실적 호조로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 1000만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유치했다.

또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규모도 크게 확대돼 KT·카카오페이가 네이버 등이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건(지난해 10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어서 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지정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출시된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올해 8월 출시한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채용했다.

28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다. 출시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통3사)'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많은 신규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운정 시전문기자 echo@

>> 1면 '구글앱 마켓 갑질...'서 계속



국내 IT업계도 강력반발 전기통신법 위반 행위 등 방통위 실태점검 나설 듯

국내 IT 업계도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 200곳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 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을 상대로 하는 반독점 조사도 활발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애플페이·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애플을 시작으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미 EU로부터 반독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U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43억 유로(약 5조 8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미 법무부도 알파벳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남용해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7월에는 연방 하원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의회로 불러 반독점 이슈를 추궁하기도 했다.

중국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았다는 화웨이의 주장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소비자물가 상승률 6개월 만에 최대치

통계청, 최장기간 장마 등 영향
농·축·수산물 9년만에 최대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장기간 장마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9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전세와 월세도 각각 19개월, 56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년=100)으로 1년 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4월 0.1%, 5월 -0.3%로 내렸다가 6월(0.1%)을 기점으로 7월 0.3%, 8월 0.7%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식이 줄어든 데다 저유가·교육분야 정책지원 강화에 저

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상품은 1년 전보다 1.5%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13.5% 상승해 2011년 3월(14.6%)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소류가 34.7% 오르면서 농산물이 19.0% 오른 영향이 컸다.

배추(67.3%), 무(89.8%), 사과(21.8%) 등이 상승폭을 끌어올렸다. 축산물(7.3%)도 많이 올랐고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6.0%였다.

반대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업제품은 0.7% 내렸다. 석유류는



12.0% 급락했고 가공식품은 1.2%로 소폭 상승했다. /한용수 기자 hys@